

어떻게 읽었느냐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한다

필자는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의 선입관을 깨기 위하여 열 문제를 내는 일을 10여년간 해 오고 있다. 그 중의 한 문제가 “똑같이 빈민굴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한 사람은 히틀러가 되고 한 사람은 채플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답은 자신이 맞은 ‘가난 이란 텍스트를 읽은 차이이다. 가난을 ‘박탈감’으로 읽은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난을 ‘복수심’으로 해독한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난하면서도 누구보다 의연하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년도 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가난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심연의 고통이나 의미에 다다른 길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읽은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어떤 이보다 깊고 맑은 눈으로 가난한 이를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의 소외와 고통을 읽는다. 가난에 담긴 인류의 문제를 통찰한다. 가난의 뼈저린 고통 속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가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러기에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사상과 예술, 과학 중 상당수의 걸작들이 이들 가난한 소년들이 창조하였던 것이다.

읽기의 차이는 한 사람의 운명만을 좌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신라 진평왕대에 혜성이 출현하여 신라왕을 상징하는 심대성을 스치고 지나가자 흉조의 징조라고 난리인데 왜병마저 침입한다. 이때 용천사가 나타나 혜성이 빛자루

모양으로 생긴 것에 착안하여 그것은 혜성이 아니라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이라 바꾸어서 읽는다. 그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혜성가>를 부른다. 이에 사기를 얻은 화랑은 왜병에 맞선다. 결국 왜병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간다.

먼 옛날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김영삼은 IMF위기를 낳은 장본인으로 거의 모든 한국인의 조롱 대상이다. 하지만 집권 초반에 그의 인기는 90%를 넘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민들은 개혁을 위해서라면 세금도 내겠다고 하였고 이런 국민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을 세계의 국가원수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몰락하였고 나라를 이토록 망쳐놓았을까?

여러 모로 모자라는 그의 자질에서 개발독재 모델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 텍스트 읽기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 또한 요인이다.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의 읽기 수준은 세계 최하이다. 전제주의적 문화, 일제 식민지와 미국식 실용주의가 혼합된 주입식 교육 속에서 우리 국민은 미디어건, 삶이건 텍스트를 ‘밑줄 쪽 식’으로 읽는 방식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수구반동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던 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저 유명한 “김일성 조문파동”을 만들어 대대적인 반격을 취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를 한 텍스트로 놓고 읽지 못하였고 기사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을 지지하던 이들이 금세 이를 공산화쯤으로 생각하였고 개혁인사를 빨갱이로 몰아세웠다. 김

디지털사회, 우리는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읽기는 같은가, 다른가? 올드 미디어는 감독이든 연출가든 시인이든 텍스트를 만든 자의 메시지를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독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였다. 라디오의 청취자나 텔레비전의 시청자는 자동차 안이나 거실에서 방송을 듣고 보며 텍스트에 담긴 제작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 하였다.

영삼도 정부 내 개혁적 인사들을 잘라버리는 등 온갖 개혁정책을 포기한 채 수구의 책동에 놀아났다. 그때 우리 국민이 『조선일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면, 그 장단에 넘어가지 않고 행간에서 수구반동의 언론공작을 읽어냈다면, 오히려 그 기회에 수구반동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개혁은 성공하여 한반도에는 온통 찬란한 빛이 가득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 읽기는 단순히 책을 해독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환경이나 조건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 깊이 있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해독이 있다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선다. 우리는 우리 앞의 텍스트를 읽는 만큼, 그 만큼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는 고전 텍스트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포스트모던 읽기 - 닫힌 읽기에서 열린 읽기로

서양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언어와 텍스트의 확정성, 고정성과 동일성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나무’라 말할 때 기호는 ‘나무’의 관념 내지 이미지를 떠올릴 뿐 현실의 나무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기호는 부재한 현전(現前)을 지시할 뿐이다. 또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줄기와 가지와 뿌리로 이루어져 있어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

이란 의미를 갖는가? 세계는 언어기호를 통하여 표상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기호 자체가 본질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스스로는 아무런 의미도 본질도, 이름도 갖지 못한다. ‘풀’과의 차이와 관계를 통하여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란 의미를 드러낼 뿐이다. ‘풀’이 없으면 ‘나무’도 없다.

또 ‘나무’의 의미는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고 규정되지 않는다. 이는 자유연상에 의하여 ‘푸른 이상, 하늘과 땅의 중개자, 자연, 부드러움’ 등으로 의미망을 넓히고 나무를 정의한 글 속의 ‘목질, 줄기, 가지다, 다년생, 식물’의 연상(言相, signifiant) 또한 맥락에 따라 언의(言義, signifiant)의 사슬 속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의미를 연기한다.

‘풀’을 어느 사람은 “바람(지배층)에 휘둘리면서도 일어서는 민중”으로 어느 사람은 “푸릇푸릇한 이상을 품은 청년”으로 해석한다. “절망에 잠긴 내 눈가로 별이 반짝였다.”라는 말의 의미도 맥락에 따라 “절망에 잠긴 내 눈가로 눈물이 흘렀다.”, “절망에 잠긴 내 눈가로 희망의 별이 반짝였다.”, “절망에 잠긴 내 눈가로 장군이 보였다.” 등을 나타내듯 언술의 의미는 무한히 확대한다.

‘나무’를 ‘풀’과 대비시키면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쇠’

와 대비하면 ‘자연, 목질의 부드러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각각의 기호에는 그 기호가 그것이 되기 위하여 따돌렸던 다른 낱말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의미는 기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기호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모든 연상의 연쇄를 따라서 흩뿌려져 있다. 의미는 어떤 하나의 기호에 의하여 완전히 현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전과 부재간의 일종의 끊임없는 교차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데리다는 산종(散種, dissemination)이라 명명한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나” 대신에 고유명사, “너”로 쓸 것을 나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너”는 “나”와 “대리보충”의 관계이다. 또 “그 여자” 대신에 특정 이름, “예쁜 여자”, “영화배우”, “인도 여자”, “좋아한다” 대신에 “사랑한다” “귀여워한다” “관계를 맺고 싶다” 등의 말을 쓰려다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선택한 것이니 이 말에는 여러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니 기호의 구조는 영원히 부재한 타자의 흔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미는 현전과 부재와의 끊임없는 교차이고 대리보충의 관계이다.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든다. 그러니 텍스트에는 수많은 텍스트가 중첩되어 있고 한 텍스트에 어떤 텍스트를 대조시키느냐에 따라 텍스트는 계속 끊임없이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씨를 흩어서 뿌리듯 의미는 산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데리다는 언어기호가, 진리가 차연(差延, differance)이라고 말한다. 연의는 연상의 사슬을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텍스트와 진리는 차연인데 정답을

찾아 밑줄을 짚 곳은 읽기를 우리는 지속해야 하는가? 롤랑 바르트가 ‘작가의 죽음’을 선언한 때가 1958년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작가의 의도’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할까? 이제 고전 읽기는 고증학적, 실증적, 역사주의 비평적 읽기를 넘어서서 열린 읽기로 나아가야 한다.

고전 읽기가 열린 읽기가 되어야 하는 더 깊은 까닭이 있다. 우리는 동일성의 철학이 범한 야만과 폭력을 기억하고 있다. 동일성의 철학은 배제의 담론을 낳는다. 20세기는 배제의 담론이 지배한 역사였다. 폴 포트를 만난 이들은 그가 온화하고 겸손하며 지적이면서도 따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을 킬링필드로 보냈을까? 그의 뜻만큼은 숭고하였다. 캄보디아 농촌을 보고서 그는 캄보디아 전체를 농촌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며 순박한 인심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안경을 낀 사람도 ‘도시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처형할 정도로 ‘도시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서 절대 순수한 농촌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나치즘의 유대인 대학살과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스탈린주의와 수용소군도, 미군의 밀라이 대학살, 유고의 인종 청소 모두 “너는 우리편이 아니다.”라는 배제의 담론의 소산이다.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우는 아이마저 대검으로 쳐죽인 군인들이 악마의 화신이였을까? 아니다. 그들도 소설을 읽고 영영 울어버리고 첫사랑에 온밤을 설렘으로 지새우고 키우던 강아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다만 “저들은 우리편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저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식의 배제의 담

론이 그들을 그렇게 악마로 바꾸어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정답 찾기의 읽기는 교조를 부른다. 20세기를 통하여 인류가 깨달은 것은 교조는 지성의 무덤, 인간의 부정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민주화를 달성하였음에도 생활과 문화의 차원에서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 패거리주의 등 소위 ‘일상적 파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주의적인 읽기가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낳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의미는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물결친다. 우리는 이제 전체주의적 읽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열린 읽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울타리는 있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전적으로 동의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진리는 역사 안에서 진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차이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 진리란 끝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주의 등 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지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해체의 미궁 속으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회의주의적 인식론에 빠지고 만다. 언어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형식들과 떼어 수 없이 얽혀있는 것으로서 생각한다면, 의미를 ‘정할 수’ 있고 ‘진리’ ‘현실’ ‘지식’ ‘확실성’ 같은 단어들은 그 힘을 상당히 회복하게 된다.” 고전을 읽을 때 열린 읽기를 하되, 거기 주체들이 놓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울타리를 돌려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고전 읽기, 더 이상 일방통행은 없다

디지털사회, 우리는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읽기는 같은가, 다른가? 올드 미디어는 감독이든 연출가든 시인이든 텍스트를 만든 자의 메시지를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독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였다. 라디오의 청취자나 텔레비전의 시청자는 자동차 안이나 거실에서 방송을 듣고 보며 텍스트에 담긴 제작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 하였다. 대중문화만이 아니다. 대통령후보의 연설도, 유명 강사의 강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기에 이들 텍스트에 대해서도 일방적 해독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올드 미디어에서 수용자가 나름대로 해독할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드 미디어의 일방통행 구조는 일상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수용자의 해독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진리를 창달하고 정부와 맞서서 제4부로 기능을 하리라던 언론은 국가를 선전하고 지배층의 이념을 합리화하는 ‘국가기구’로 전락하였다. 귀족만이 누리던 문화를 대중에게 누리게 하여준 프로메테우스라 여겼던 대중문화는 문화를 상품화하고 물신화하였다. 그리고 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캔 맥주를 보며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노동자가 자신이 중산층이라 착각하여 사회변화를 바라지 않듯, 대중문화는 ‘반역’을 향한 동경마저 길들여 노동자를 보수화하였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소통의 미디어라는 점이다. 뉴미디어 시대에서 수용

고전 가운데 대부분을 우리는 정전(正典, canon)이라 한다. 헌법이 그 사회의 모든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이견, 가치와 이견, 갈등을 판가름하는 법 중의 법이듯, 정전은 모든 혼돈과 다양한 해석 사이에서 진리와 허위를 구분해 주는 지표 가운데 지표이다. 때문에 정전 읽기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어찌 우리가 성현들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진리에 다다르겠는가? 하지만 새기고 새겨 사색하고 읽고 또 사색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한 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다.

자는 제작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동적 대중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독하며, 이에서 더 나아가 발송자 또는 제작자를 향하여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 제작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컴퓨터 채팅을 하듯이 상대방이 보낸 텍스트에 대해서 자신의 해독과 가치평가, ‘다시쓰기’를 곁들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 인터넷에 오른 텍스트에 손질을 하여 다시 하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송출된 수천, 수만 개의 채널 가운데 몇몇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다음 이를 조합하여 자신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수용미학자들 또한 일방적 읽기를 거부한다. 연주되지 않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악보가 노트에 불과한 것처럼, 독자를 만나 수용되지 않은 텍스트는 종이 묶음에 불과하다. 작품은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하여 실현되며 작품의 진정한 이해는 독자의 참다운 독서행위를 통하여 구현된다. 어떤 미친한 독자도 자신의 ‘기대의 지평’을 가지고 책을 대하며 이것이 텍스트의 지평과 만나 ‘지평의 융합’을 이룬다. 부분을 읽으며 전체를 가늠하고 전체를 읽으며 부

분을 수정한다.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형성하고 이 지평을 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이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 ‘해석학적 순환’을 되풀이하면서 독자는 책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에 이른다. 이것이 독서를 하는 효용이자 즐거움이다. 그러기에 텍스트의 쓰여진 부분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우리에게 사물들을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은 쓰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듯 미학적 가치는 예술작품 내에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와 수용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우리는 고전을 읽는다. 그것은 그 속의 수많은 성현들과, 그 책을 읽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때로는 나와 끊임없는 대화하는 것이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고전 읽기는 어느덧 삶의 읽기로 전환하여 나의 삶을 바꾼다.

아무리 오랜 고전도 ‘지금 여기에서’ 읽지 않으면 죽은 읽기이다